

‘국산 1호백신’ 스카이코비원, 접종 시작...1·2차만 가능

당일접종만...사전에예약자는 13일부터 4주 간격 2회...1·2차 기초접종에 활용 당국 "이상반응 우려 미룬 분들 접종"

5일부터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국산 1호 백신 ‘스카이코비원’을 전액 수입으로 당일 접종이 가능해진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는 이날부터 전국의 보건소나 일부 위탁의료기관에서 스카이코비원으로 1·2차 기초접종이 가능하다.

사전예약은 지난 1일 시작됐으며, 예약 첫날 19명이 접종 의향을 밝혔다. 사전예약자는 오는 13일부터 낱짜와 스카이코비원 백신을 접종할 의료기관을 정할 수 있다.

스카이코비원은 4주 간격으로 총 2회 접종한다. 노바백스 백신처럼 B형 간염 백신,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자궁경부암 백신) 등 다양한 백신 제조에 활용하는 합성

항원(유전자재조합) 방식이다.

스카이코비원은 지난 6월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지난달 26일 국가출하승인을 얻었다. 지난 2일 경북 안동 공장에서 초도물량 약 61만회분이 첫 출하됐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질병관리청 접종계획에 따라 1000만회분을 순차적으로 국내에 공급할 계획이다.

스카이코비원의 효과와 안전성은 확인됐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대조군으로 분석한 결과 2회 접종 14일 후 중화항체는 2.93배 형성됐고 중화항체가 4배 이상 상승한 비율은 98.06%로, 대조군 87.30%보다 높았다. 이상반응은 13.3%, 중대한 이상반응 0.5%로 발생해 대조군의 14.6%, 0.5%보다 더 낮거나 같았다.

현재는 기초접종만 가능하지만 추후 3차 이상의 교차접종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스카이코비원 백신으로 3차 접종을 했을 때 BA.1, BA.5 변이에 어느 정도 중화항체를 형성하는지 확인하는 교차중화능 연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으로 기초접종을 마친 집단과 아스트라제네카 1차, 화이자 2차를 교차접종한 집단은 스카이코비원으로 추가접종 후 접종 전보다 BA.1에 평균 약 51.9배, BA.5에 약 28.2배의 중화능 상승 효과를 보였다. 특히 화이자, 모더나 등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으로 기초접종을 마친 후 스카이코비원을 3차 접종했을 때 더 높은 중화능을 보였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mRNA 백신에 대한 이상반응 우려로 그간 기초접종을 꺼린 분들은 스카이코비원 접종이 가능하다”며 “(오미크론용) 2가(개량) 백신은 기초접종 완료자에게 추가접종으로 하게 되므로 아직까지 기초접종을 하지 않은 분들은 기



초접종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재환기자

영광 물고기 떼죽음 원인 ‘오리무중’...‘용존산소 부족’ 추정



영광군 군서농공단지 인근을 흐르는 하천에서 지난 7월 초 발생한 물고기 떼죽음 원인이 ‘용존산소 부족’으로만 추정할 뿐 오리무중으로 결론이 났다.

5일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 7월12일 군서면

전남보건환경연구원·해양수산과학원 “진단명 없음” 판정

군서천에서 역한 악취와 함께 물고기가 집단 폐사했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영광군은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물고기 사체와 하천수 시료를 채취해 전남보건환경연구원과 해양수산과학원에 보내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

이로부터 두 달여가 지나 양 기관이 내놓은 물고기 폐사 원인 분석 결과는 ‘진단명 없음’이다.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농공단지 내 우수관로와 농수로, 하천보 지점에서 채취한 하천수 수질 분석 결과 ‘부유물질·총유기탄소량·총질소·총인 항목’이 환경기준 상 ‘매우 나쁨’(2.0mg/l미만)으로 판정됐다.

이는 ‘용존산소 부족’이 물고기 떼죽음의 원인으로 추정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주민들이 물고기 집단폐사 원인으로 지목한 ‘농공단지 폐수유출 의혹’ 여부를 조사한 결과 예선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하천수 시료 분석 결과 광유류를 함유한 노르말렉산 추출 물질은 1.3~1.5mg/l로 수질기준 5mg/l를 초과하지 않았다.

또 생태독성 항목도 1TU(생태독성값·Toxic Unit) 기준이내인 0~0.3TU로 판정됐다.

이에 따라 영광군은 수중 용존산소 부족 등 종합적인 원인에 의해 물고기가 집단 폐사한 것으로 결론 냈다.

특히 농공단지 내 우수관로를 통해 유기물질 함량이 높은 물과 주변 마을 생활하수, 농경지 비료 등이 농수로로 통해 하천으로 유입돼 강한 햇빛과 높아진 수온, 가뭄시기 물 순환 정체로 조류가 과도하게 번식해 발생한 녹조현상을 직접 원인으로 보고 있다.

앞서 영광군은 물고기 집단폐사 발생 당시 주민 신고에 따라 농공단지 2곳에 입주한 56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오염원 배출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환경관련법 위반사업장 6개 업체를 적발하고 각각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농공단지 환경개선 방안 대책으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분기마다 오페수처리실태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군서천 수질개선을 위해 하상도 준설사업과 수질오염 감시 시스템을 설치하고, 오페수 무단방류 등 오염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기자

“가정폭력 분리조치, 피해자 동의 없어도 적법”

‘분리조치’ 경찰관 폭행 사건서 판단

경찰관이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분리조치를 시행할 때 피해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2020년 2월7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리는 방식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관이 A씨에게 여자친구와 떨어져야 한다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난 A씨가 경찰관에게 저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관들은 A씨 여자친구의 어머니로부터 “딸에게서 ‘남자친구가 죽이려고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날 파출소에서 ‘공무집행방해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키보드를 깨뜨린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파출소 안에서 책상을 뛰어넘어 키보드를 부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경찰관이 피해자인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분리조치를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동의 없는 분리조치는 위법하기 때문에 판례상 인정되는 공무집행방해의 구성요건인 적법한 직무집행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

1심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도 “경찰의 행위는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A씨와 여자친구를 분리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도 경찰관들이 분리조치를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은 가정폭력처벌법이 분리조치를 규정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가정폭력 범죄의 특수성과 가정폭력처벌법의 입법목적, 응급조치(분리조치 포함)를 규정된 취지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분리조치를 희망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해도 경찰관의 분리조치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이 가정폭력처벌법상 응급조치를 시행할 때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선욱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